

## 막막한 취업준비! 멘토에게 물어보세요

서이화2020-07-21

### 나만 몰랐어!서울청년지원사업 ① 프로칭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더욱 깊다. 기업마다 채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멘토링이나 각 대학에서 추진하는 '선배와의 대화'도 연기·취소되는 등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 줄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http://volunteer.seoul.go.kr/>)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인생선배들이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돕고, 직무멘토링을 하는 자원봉사인 '프로칭'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대면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15일, 17일에는 '관공서 현직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멘토링, 랜선잡(Job)담(Talk)'이 있었다.

이번 랜선잡담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하여 서울관광재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현직자들이 참여했다. 분야별 관공서 현직자 1인과 대학생 4-6인이 매칭이 되었다. 60분씩 총 9회 실시됐으며, 참여는 온라인 회의를 위한 플랫폼으로 알려진 줌(ZOOM)에서 진행됐다.



온라인 직무 멘토링 '랜선잡담'에 참여한 SH공사 성정제 주임(좌), 김대천 주임(우) ©서이화

7월 15일 첫 날, 첫 순서는 SH공사 홍보직무와 토목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홍보직무 프로보노는 홍보부 김대천 주임이, 토목직무 프로보노는 근린재생사업부 성정제 주임이 나섰다. 청년들은 무엇이 궁금했고 어떤 멘토링이 오고갔을까, 그 현장을 살짝 엿보았다.

### # 취업 준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멘토링이 진행되기 전 취업 준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김대천 주임, 성정제 주임에게 물었다. 두 주임 모두 면접에 앞서 필기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선택한 전공 과목 준비가 가장 우선인 것 같다고 전했다. 직무 관련 역량으로는 김대천 주임은 홍보 분야에서 창의성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과 엑셀을 통해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꼽았다.

성정제 주임 역시 토목과 관련한 전공 지식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일을 하다 보니 말 이든 글이든 조리 있게 전달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같은 성과물이라도 어떻게 보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든, 면접을 할 때든 두괄식으로 간결하고 조리 있게 뜻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SH공사 김대천 주임이 줌(ZOOM)에서 멘토링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서이화

### # SH공사 홍보직무 인터뷰

#### Q. 취업할 때 가장 강점이었다고 생각하는 활동

김대천 주임은 SH공사 홍보부에서 서울홈즈와 대학생 서포터즈를 맡고 있다. 김 주임은 대학시절 홍보대행사 인턴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취업 과정에 많이 녹여냈다고 한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에 대해 탐구하면서 당시 도시재생 사업과 현재 도시재생 사업의 진척도, 변화한 점에 대해 공부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읽었던 책들, 직접 가봤던 현장을 면접 때 언급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Q. 주택 관련 경험이 필수적인가**

온라인 멘토링에 참가한 한 학생은 SH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주택 관련 경험이 필수적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김대천 주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관련 경험이 있다면 자소서와 면접에서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SH공사 블로그 기자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담당 중이고, 최근 서포터즈 채용을 진행했지만, 사실 면접자 대부분이 '상경해 주거문제를 겪다 보니 SH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답해서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추상적이고 흔한 답변 보다는 '주거 관련 봉사활동, 대외활동 혹은 수업 중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중 알게 된 SH 사업' 혹은 '건축이나 도시계획 분야로 미래를 준비하던 중 서포터즈를 지원했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신 분께 마음이 갔다고 한다. 공채 면접의 경우 조금 더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큰 맥락에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도움을 주었다.



SH공사 성정제 주임이 토목 직무에 대해 소개 중이다 ©서이화

**# SH공사 토목직무 인터뷰**

**Q. 토목 분야 업무란?**

성정제 주임은 SH공사 근린재생사업부에서 행복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서 토목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소통자' 역할을 한다. 여기서의 소통은 현장과 행정 사이에 소통이다. 설계도면을 받아 확인하고, 시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역할이다. 일이 마무리 되었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하자 수리를 요청하여 다시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Q. 직무 수행 중 힘들었던 경험, 뿌듯했던 경험**

일을 하다 보면 민원 처리도 많이 하게 되는데, 현장 민원이 특히 힘들다고 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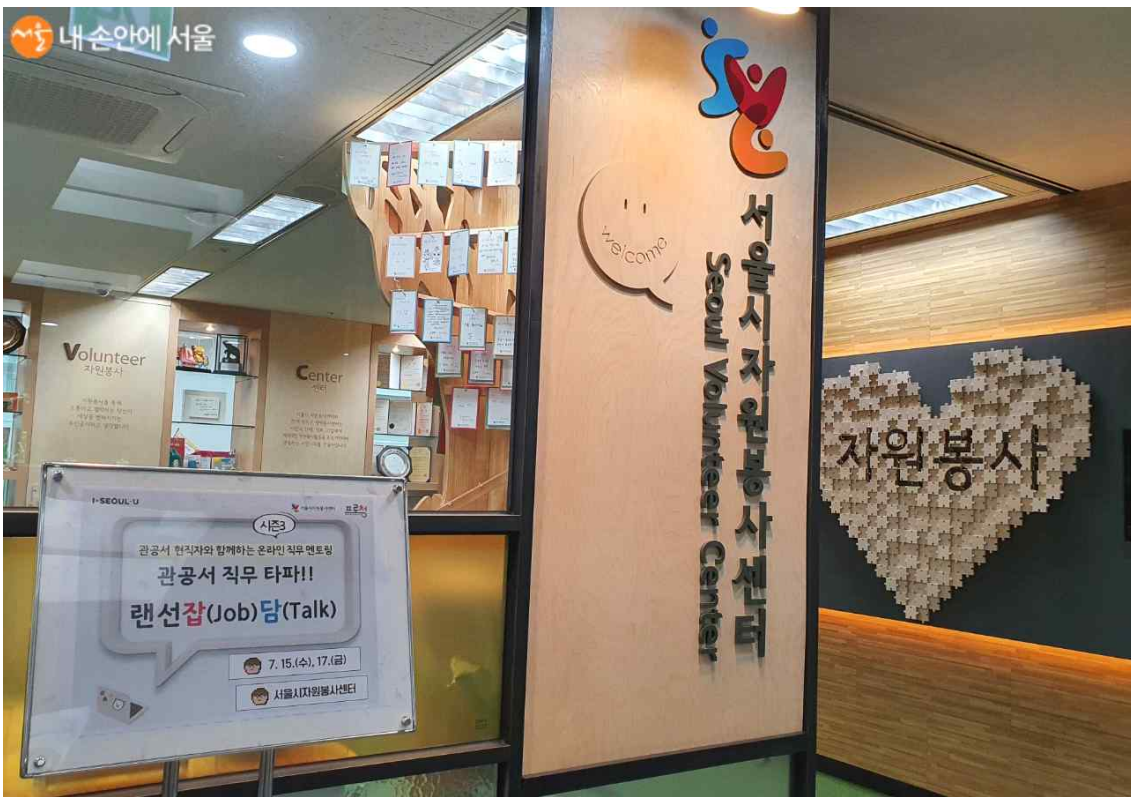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민원이 해소되면 보람을 느낀다고. 공사가 끝나고 분양하거나 입주까지 마무리가 되면 후련하면서도 뿌듯하단다. 상사로부터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위로 겸 칭찬을 들을 때 감동을 느낀다고.

**Q. 토목 직무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성정제 주임은 취업을 위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토목 기사 시험'이다.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한다. 필기, 실기가 나누어져 있는 시험인데 일찍 준비를 잘 해서 한 번에 붙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대외활동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프로청 직무 멘토링 등의 활동에서 정보를 얻거나,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산업시찰'을 통해 실제 시공사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정보들을 잘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Q. 토목 관련 일은 토목학과를 나와야만 가능한지**

입사 시에 입사 조건이 기업마다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SH의 경우 각 직무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필수 조건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토목직 동기들 중에는 토목학과 외에도 부동산학과, 도시계획이나 설계 관련 전공을 한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 여러 기업들의 토목 관련 채용 공고들을 살펴보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공서 직무타파!! 랜선잡(Job)담(Talk)을 주최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이화

랜선잡담 직무 멘토링은 현직에 있는 멘토(프로보노)가 청년들에게 근무 회사, 직무, 취업 준비 과정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8월에는 LG헬로비전과 씨티은행,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9월은 현대엔지니어링, 10월은 CJ나눔재단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멘토링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대면 멘토링, 강의를 줄어들어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직무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소감을 전했다. 프로청 사업과 관련한 참가자 모집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http://volunteer.seoul.go.kr/>) 공지를 통해 가능하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꼭 한 번 참가해 보기를 추천한다.

## 취준생 강력추천! 현직자와 함께하는 '매칭데이'

조성진2020-07-27

### 나만 몰랐어!서울청년지원사업 ① 프로칭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이 있다. 지원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직무를 파악하기 위해 현직자를 만나보라는 말이 그것이다.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무작정 기업이나 기관 앞을 찾아가 현직자를 찾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취업준비생을 위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프로칭에서는 현직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칭은 프로보노(직무 5년 이상 현직자)가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본인의 직무 경험 및 지식을 나누는 자원봉사를 운영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홍보부 김대천 주임이 온라인으로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프로보노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매칭데이는 기업, 기관의 현직자들을 취업준비생들과 연결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직무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사회 진입 준비 중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도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CJ나눔재단, ZARA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7월에는 서울시청, 서울신용보증재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서울관광재단, 서울시설공단 등의 현직자들이 참여했다. 직무 분야는 경영 행정, 도시계획/개발/설계, 토목, 홍보, 인사, 사회공헌, 총무, 서울시정 관련 업무 등 총 8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7월 15일과 7월 17일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된 이번 매칭데이에 서울시민기자이면서 청년의 입장에서 참여해 보았다. 기자가 참여한 직무는 7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홍보 직무였다. 매칭데이 '랜선잡담'은 현직자 1인 X 청년 4인으로 구성된 온라인 소그룹 멘토링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준비한 사전 질문에 대한 현직자의 답변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번 진행된 매칭데이 '랜선잡담'의 모집 배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년들의 질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홍보직무를 맡고 있는 김대천 주임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Q.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일단 필기시험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인생에서 겪어온 경험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찾아 자소서에서 구체적으로 녹여내려고 노력했다. 특히 필기시험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준비할 때, 많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시간을 단축하고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보고 실전 감각을 쌓는 것을 추천한다.

**Q. 홍보 직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실무 능력은 무엇인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 공기업의 경우, 오래 다니는 만큼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홍보 직무는 특히 타부서와 협력할 일이 많아서 더욱 그렇다.

**Q. 홍보 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툴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실무에서는 일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디자인 영역은 대부분 대행 업체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오히려 행정 능력에 있어서 엑셀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년사업팀 프로쳐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위의 질의응답 외에도 다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 현직자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이야기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해당 기업이나 직무 뿐만 아니라 취업에 관련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직접 현직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것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매칭데이를 통해 현직자를 만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취준생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추후에 진행될 매칭데이에 다시 참여하고 싶을 정도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년사업팀 프로그램에서는 매월 1회, 기업 및 기관 현직자 직무 코칭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기를 권한다.

####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전문가가 청년에게 직무멘토링과 사회참여 등을 돕는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1회 매칭데이를 통해 사회 현직자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무 멘토링을 제공하고, 전문가와 청년그룹을 연결하여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홈페이지 : <http://volunteer.seoul.go.kr/>

○ 문의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청년사업팀 02-2136-8723

## 인생선배의 값진 조언을 들었다! (feat.프로청 매칭데이)

염윤경2020-07-21

### 나만 몰랐어!서울청년지원사업 ① 프로청

“원하는 직무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무엇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 전공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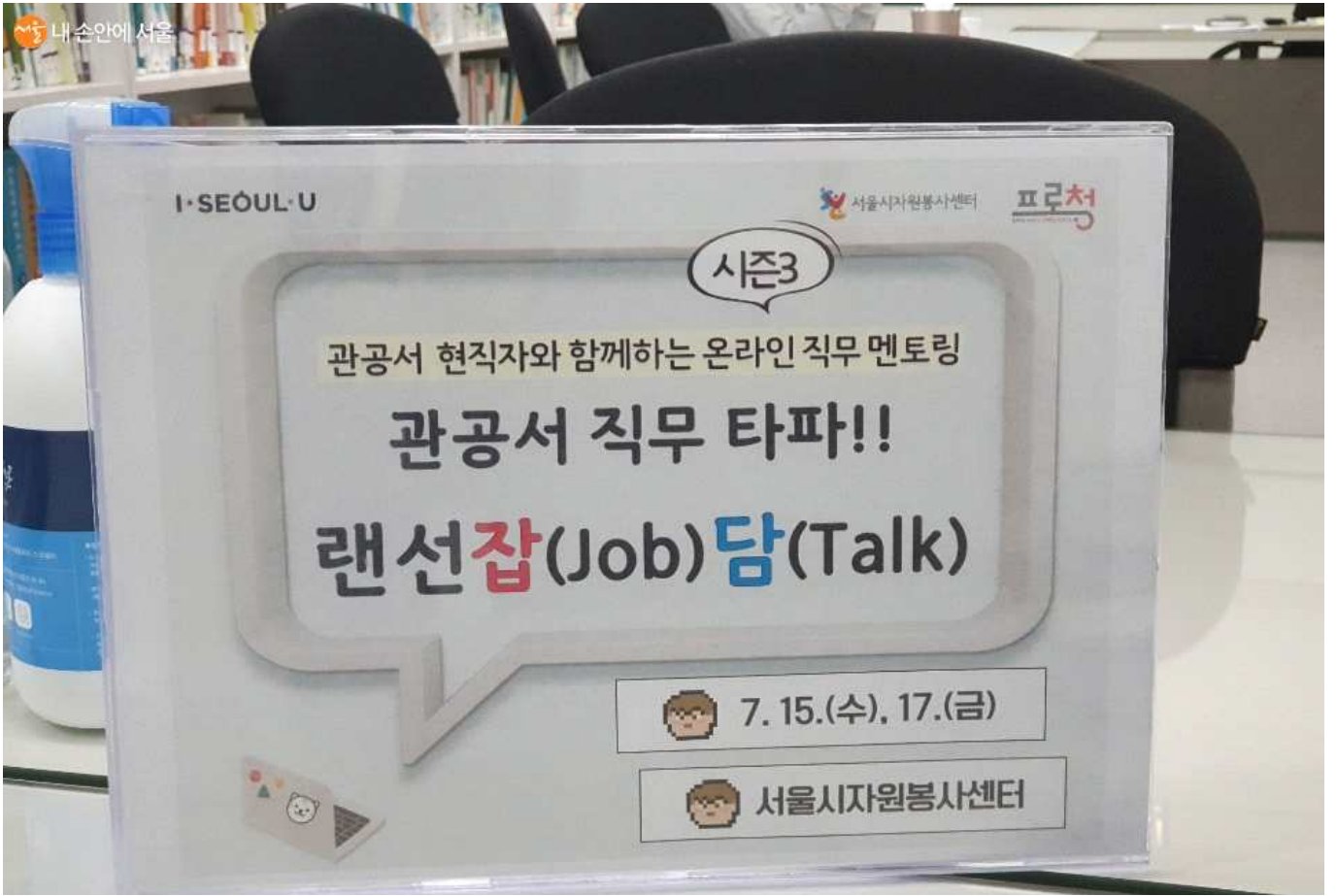
사회로 발돋움을 앞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궁금증일 것이다. 나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과 고민거리는 아주 많지만, 이것들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현직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직자들이 나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서울시와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과 궁금증을 들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서울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청년지원사업 ‘프로청’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지원사업 '프로청'을 주관하는 서울자원봉사센터

프로청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매칭데이’는 해당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인 프로보노가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화상플랫폼을 이용한 ‘랜선잡담(Job Talk)’으로 진행된다. ‘매칭데이’는 월 1~2회 단기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7월은 서울시 관공서 현직자들과 함께 했다. 필자도 7월 15일에 진행된 토목직무 랜선잡담에 참여해보았다.





7월에 진행되었던 서울시 관공서 랜선잡담

토목직무 랜선잡담은 서울도시주택공사 근린재생사업부 성정제 주임과 함께 했다. 성정제 주임은 설레고 긴장되지만, 학교 후배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랜선잡담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랜선잡담에 함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업무 속에 지친 스스로가 청년들과 함께 활력을 되찾고, 초심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어서 자원하게 되었다.



토목직무 랜선잡담에 함께한 서울도시주택공사 성정제 주임

토목직무 랜선잡담은 ‘토목환경공학과’ ‘건축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청년들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 “토목과 관련된 공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랜선잡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관련학과 임에도 다양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위해 참여한 참가자도 있다. 랜선잡담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정제 주임은 랜선잡담을 하기 전 사전질문지를 받아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미리 체크했다.



청년들과 랜선잡담을 진행하는 성정제 주임의 모습

청년들은 랜선잡담을 통해 아주 다양한 질문을 했다. ‘토목직무에서 하는 일’과 ‘토목 직무를 준비하는 방법’, ‘토목 직무의 전망’ 등 토목 직무 관련 질문은 물론, ‘토목 직무를 가기 위해 학부 과정에서 해야 하는 노력’, ‘키워야 하는 역량’ 등 해당 업무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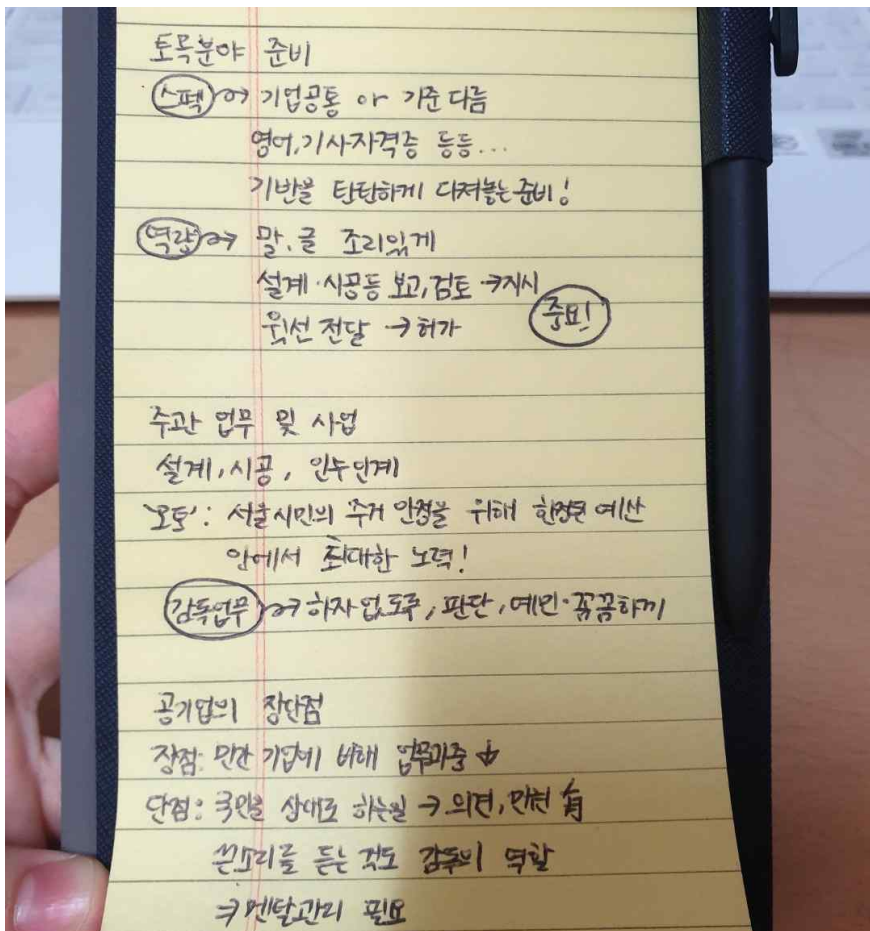
그 외에도 “공사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공기업만의 장단점이 있나요?”,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등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기업에 관한 질문도 눈에 띄었다. 직무에 관한 질문 외에도 “무엇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뿌듯한가요?” 등등 인생선배에게 묻고 싶은 다양한 고민과 질문들도 오갔다.

성정제 주임은 청년들의 질문을 더욱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해 주기 위해 스스로 고민함은 물론 회사 동료와 대학교 동기들에게도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청년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좋은 답변을 얻어 갈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성정제 주임

특히 성정제 주임이 조언한 것 중 인상적인 것은 '본인만의 진실된 에피소드'를 하나쯤 만들어 두라는 것이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기업을 가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특히 면접관이 듣기에 진실된 에피소드 하나가 있다면 정말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왜 토목을 하게 되었는지는 사실 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뻔함을 뻔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본인만의 진실된 에피소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프로보노의 말은 취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조언이었다.



랜선잡담을 함께하며 직접 필기한 내용들 ©염윤경

이번 랜선잡담에 대해 청년들은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자격증과 공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더욱 상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성정제 주임도 이번 랜선잡담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도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청년들에게 ‘현직에서 만남시다’라는 응원의 한마디를 남겼다.



값진 경험이었던 성정제 프로보노와 함께한 랜선잡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성정제 주임과 함께한 이번 랜선잡담은 쉽게 만나기 힘든 현직자에게 자세한 직무 지식과 생생한 직무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더불어 프로보노는 현직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생 선배였다. 청년들은 인생 선배에게 듣는 경험과 조언을 통해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가졌다. 프로보노와 청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매칭데이’는 7월 서울시 관공서, 8월 LG 헬로비전, 9월 현대엔지니어링, 10월 CJ나눔재단과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매칭데이’는 서울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로가 고민되는 청년들이라면, 진로 외에도 여러 인생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프로그램 ‘매칭데이’에 참여해보자. 삶의 좋은 멘토를, 그리고 인생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이다.